

2021-2022

ZOOM마을ZOOM in 용인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모임  
전체 기록

# Zoom마을Zoom in 용인 우리들의 공부



'터 무늬' 교재를 가지고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우리들의 공부

**12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 (부분 참여 가능)  
**매주 화요일 10:00-11:30**

'터 무늬' 교재를 가지고 이어갑니다.

한 달에 3번은 줌으로 만나고 한번은 오프라인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각 회차에 다룰 교재 내용을 미리 읽고  
다음 사항을 메모해서 만납니다.

- 나누고 싶은 배움
- 나누고 싶은 질문



참가신청: <https://bit.ly/우리들의공부>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 정현중

그 섬으로 가는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깨는 과정"  
그 길에 동행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교재 및 그 밖의 문의: 031-335-1070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모임 1교시

- 일시 : 12월 7일 화요일 10시 ~ 11시 30분
- 주제 : 1교시 마을에 사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참여 : 12명
- 장소: 온라인 줌

### 기획 의도

- 올해 용인 터 무늬 학교를 구별로 진행하면서 교재를 바탕으로 수업 했지만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공부를 못해봐서 아쉬운 마음에 진행하게 되었다.
  - 이 교재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때부터 준비해서 만들어진 교재이며 마을 공동체 활동을 교육할 때 사용되었고 계속 업데이트되었다.
- 교재를 가지고 지역에서 충분히 활동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증발하기 쉬워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흔들어서 깨우고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공부 모임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 신청 동기

- 터 무늬 학교를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해 그 교재로 공부를 한다니 다시 한번 잘 배우고 적용해보고자 함.
- 용인 마을자치학교 교육을 받고 나서 더 공부해보고 싶었다.
- 마을 관련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신청
- 협동조합과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
- 교육과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다.
- 터 무늬 교육을 받았지만 교재 내용이 모두 교육에 들어있지 않아 추가로 공부해보고자 신청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 인상적인 부분 이야기 나누기

- ‘자치하는 인간이 바로 주체적인 인간이며, 자치하는 사회가 바로 책임사회이며, 자치하는 정치가 이뤄질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꽃으로 피어난다.’
- ‘자치란 사회 안에서의 자유를 말한다.’
-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깨는 과정’: 뭘가를 새롭게 한다 라는 것 자체가 일단 생

- 각을 깨야 된다. 그래야 이제 뭔가 새로운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
- 터 무늬 교육 전에는 마을공동체 단어도 몰랐고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몰랐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각을 깨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고정화되어 있어 변화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
  - 크고 작은 동기부여 과정이 필요하다.
  -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마을 만들기 운동은 단기간의 성과 중심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잘 되는 듯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긴 호흡으로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사업과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마을공동체의 성과 위주 평가, 오래 하는 사람이 없다.
  - 터무니 학교처럼 교육이 먼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방향과 뜻은 거창하지만 현장은 비루한 것이 현재 마을 만들기 운동의 현주소다’: 방향은 거창하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조차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퍼져나갈까를 생각하면 그 밑에 기능 교육보다는 관점을 세우는 세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5년 이상의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다.
  - 스스로이면서 자발적이지만 혼자서 안 되고 함께 성장하기가 핵심인 것 같다.
  - 마을자치를 통한 작은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않으면 결국 전체가 살기 어렵지 않을까.

### 마을살이 체크리스트

- 마을 안에서 활용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 연대에 대한 고민 : 주로 부정적인 이슈에 연대가 많이 일어나는데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고민이 된다.
- 필요나 도움에 의한 연대 이후에는 좋은 가치나 실천을 위한 연대로 나아가는 방향이면 좋을 것 같다.

### 네트워크 인터뷰게임

- 공부 모임에서 워크숍들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서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 마을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인터뷰 질문이 마음에

- 든다. 내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관점인 것 같다.
- 인터뷰를 하면서 빙고를 맞추는 인간 빙고 게임으로 응용해볼 수 있다.
  - 사람이 여럿일 때 질문을 하고, 빙고지에 이름을 사인받아 빙고 완성하면 사람들끼리 친밀도도 높아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다.
  - 마을살이 체크리스트를 인간 빙고나 인터뷰 게임에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 공동체 감수성 모서리게임

- 공동체에 꼭 필요한 테마를 찾아서 같이 의논하고 그 내용을 팀들이 나눌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질문은 예시이니 꼭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꾸어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해본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공간을 정해주며 움직이는 거라 즐거워하는데, 어르신 연령대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 함께 공감하는 재미가 있었다.
- 모든 모임에서 움직임이 있는 활동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 비슷하게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서 맞추는 게임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재미있었다.
- 오감을 깨우며 활동을 하면 몸 전체가 깨어나야 움직일 수 있는 거라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마무리

- ‘모든 걸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기 전에 항상 가지는 마음이다. 앞으로도 오늘 함께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다.
- 앞으로는 미리 읽어보고 와서 열심히 해보겠다.
- 마을에서 이러한 교육을 해보고 싶다.
- 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피드백이 잘 없어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좋았다.
- 터 무늬 학교 때 교재를 잘 활용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좋다.
- 미리 읽어보고 오되 가벼운 마음으로 오면 좋겠다.

### 다음 모임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줌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모임 2교시

■ 일시 : 12월 14일 화요일 10시 ~ 11시 30분

■ 참여 : 15명

■ 주제 : 2교시 지역사회 공동체

■ 장소: 온라인 줌

■ 나누고 싶은 배움

- 마을의 정의: “마을”이란 삶터(공간), 사람(조직) 및 공동체(관계)가 통합된 집단
- “마을은 공동체적 관계망으로 구성되며, 누구도 주민들을 위해 대신 마을을 만들어줄 수 없다.”
- 사회구조 역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 마을공동체 활동 이전에 지역사회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느낌  
자신이 사는 지역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듦.  
누군가의 선구적인 활동이 분명 필요할 것 같음.
- 관계망의 중요성
- 공동체 활동의 원리: ‘호혜’와 ‘자율’/ 함께 사는 것의 의미 확인/
- 구조적 사고 3가지 접근방식  
: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인식/ 구조를 통한 근본적 변화를 생각
- 활동가로서의 내가 서 있는 구조적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기
- 공익활동의 4가지 유형: 제기하기/돕기/만들기/ 해결하기
- 민관협치의 사고방식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 작은 민관협치의 필요성
- 상호 협력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과정/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으로부터 출발해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는 방식/ 연결될수록 강함: 연대의 힘
- 마을공동체 활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는 마당놀이 판 같은 활동의 무대

■ 나누고 싶은 질문

- 상호작용의 방향이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나눈 답: - 나 위주, 나 우선의 사고, 생활 방식

- 끼리끼리 모임의 폐해

- 생각의 차이, 활동 방법의 차이 불인정

- 이를 역으로 활용하면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사적 이해에서 공적 이해 강화로, 소통과 합의 방향, 민주주의 훈련)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3교시

- 일시 : 12월 21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0명
- 주제 : 3교시 마을공동체 이해하기
- 장소: 온라인 줌

**목표:** 마을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마을공동체의 지향에 대한 이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

### 나누고 싶은 배움

-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지향점이다 : 함께 움직이는 운동이 되어야겠다.
- 마을의 어원이라는 설이 있는 ‘마실’의 개념으로 보면 공동체는 작은 지역적 범위 안에서 멀지 않게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존재
- 예전에는 마을의 개념이 가까운 거리와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먼 거리의 커뮤니케이션도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 마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지역적으로는 가까운 지역의 범위, 또 하나는 대상의 문제로 파악. 만나는 사람과의 공동체적 관계망.
- 이제는 온라인 등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누구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디서 많이 활동하느냐는 것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 특성은 약화하였다.
- 공동의 유대라고 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져야 마을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다.
- 사회적 상호작용 :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네트워크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체들에 대한 개념이 다들 다르고 차이가 크다. 개인적으로 개방적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무조건 1/N로 공동체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누구도 쉽게 올 수 있고 반대 의견도 낼 수 있는 공동체를 꿈꾼다.
- 공동의 유대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 공모사업부터 하지 않고 함께 모여 재미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 생각

- 공동체는 지향이 있고 그 지향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자체로 의미가 있다.
  - 잘 나가보이는 공동체도 어느 순간 멈춰서는 경우를 보면,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 지속해서 지탱하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를 본다.
  -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려면? 개방성이 필요하다.
  - 공동체 활동할 때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 함께 못했던 경험이 있다.
  - 갈등이 유발되더라도 계속 깊은 소통이 필요하다. (진한 수다)
  - 공동체별로 지향하는 가치, 정체성은 다를 수 있다.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다르더라도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 공동체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결과물에 집중하다 보니 구성원들과 좀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지나 보니 결과물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다.
- 
- 끼리끼리 공동체는 그들끼리는 잘 되고 즐겁게 만족하지만 부족한 건 개방성이라는 생각에 동의한다. 가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건 마을공동체 운동
  - 공동체 형성이 목적이면 그 과정도 공동체 적어야 한다.
  - 교육을 통해 더 즐겁고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 나누고 싶은 질문

- 우리는, 나는 어떤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한 예는?
- 공동체의 개방성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 12월 28일 나눌 이야기

### 4교시 :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과 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대면 만남은 다음으로 미루고 28일 역시 온라인 진행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4교시

- 일시 : 12월 28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0명
- 주제 : 4교시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과 방향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마을만들기 운동의 배경 및 맥락 이해와 일상의 민주주의 토대로서 마을운동의 방향 모색

### 나누고 싶은 배움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과 활동하는 곳이라 하는데 실제로는 공공의 일을 하는 곳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다가가기가 힘들.
- 2016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 동사무소 업무를 행정과 복지로 집중하기로 함
- 주민자치센터도 그대로 있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같은 건물 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
-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게 현실임.
- 저렴한 주민자치센터의 다양한 활동이 아직까지 한정적임.
- 지역 만들기, 동네 가꾸기 등 다양한 표현을 마을 만들기라고 용어 정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선진국이고, 복지에 앞서나가고 있는 것 같음. 마을 만들기에 있어 일본은 지역 전통문화가 그대로 살아 있어 배울 점도 많음.
- 자치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숙제임.
- 마을 사람들과 상가 사람들이 열심히 좋은 마을을 만들어 놓았는데 집주인이 내 쫓음. 마을 만들기는 시골에서!!
- 마을의 마을 사람의 범위는? 마을을 사는 사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 우리 마음이 마을 사람을 어디까지 생각해 보자.
- ‘삶의 근거지를 바꾸자’라는 문장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장애인 주거지를 행정적으로 그리고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김.
- 아직은 정말 주민이 원하는 것, 원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쓰이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음. 일부의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로 진행되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변에서 그들만의 리그로 보는데, 특히 문제 인식 부분에 있

- 어 나만의 문제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함.
- 문제 인식의 방법과 경험이 부족하여 마을을 바꾸는 부분에 시작부터 어려움이 생김.
  - <반대의 놀라운 힘> 책 추천 : 소수의 중요한 반대 의견이 필요함을 알려줌.
  - 다수결, 가위바위보로 의사 결정함.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을 나누고 결정을 하면 처음과 달라짐
  - 주변에 함께 터 무늬 학교 공부 모임을 추천하면 공부까지는 함께하지 않으려 함.
  -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공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 듯함.
  - 공동체 활동이 좋은 것은 알고 있으나, 개인의 삶과 연결 선상이 없음. 필요에 의해 연결이 생겨야 하는데 아직은 공동체 활동의 가치가 공유되기 힘들.
  - 마을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어울려 놀고, 먹을 수 있는 활동이 공동체 활동의 즐거움을 1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일 수도 있음.
  - 문화공동체 부분에 있어 산업, 소비가 아닌 지역 안에서, 삶 안에서 우리가 문화의 생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 마을 안에서 취미활동을 함께 나눔으로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음.
  - 마을공동체는 사업이 아닌 비전이다!
  - 사람과 사람의 연결, 마을과 마을의 연결, 마을과 지역의 연결, 지역과 국가의 연결 중요
  - 기획 및 실행, 운영 능력, 연결 능력, 민관거버넌스, 협업 등등 꼭 필요
  - 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주어져야 함.
  - 상상상 :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 상상실 : 상상한 걸 이상에서 실천하라
  - 무엇이 필요한지, 불편한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소속감을 갖을 수 있도록,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주민들에게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음.
  - 정기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참여시 의견을 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음. 이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뺏는 것임. 꼭 달라져야 할 부분임.

1월 4일 나눌 이야기

5교시 : 마을 자치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5교시

- 일시 : 2022년 1월 4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3명
- 주제 : 5교시 마을자치
- 장소: 온라인 줌

**목표:** 마을자치에 대한 개념이해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 나누고 싶은 배움

- 마을공동체의 지향은 세상을 공동체적 관계망으로 재편하려는 지향이다, 즉 마을공동체를 우리사회의 운영원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이들과 이들의 관계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 마을공동체는 우리 사회를 상호 호혜적 관계망, 상호부조의 관계망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적 운동이다.
- 오늘날 제도화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타인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참여와 직접적 결정권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과 책임이 곧 자치의 기본이다.
-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의 이해를 우리의 이해로 조화시켜가는 자치 역량의 훈련, 서로의 민주의식, 시민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지속적인 실천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결국 하나의 활동이며,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 여러 가지 전지구적인 세상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역시 지역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참여와 실천이다.

## 2. 함께 나눈 의견

### 평등

- 마을 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구성원 간의 평등 관계 수립이 중요

- 호칭 문화가 수직관계를 만들

## 제안

- 용어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함
- 담론이 거시적임, 미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용인에서 할 수 있는 지역모임, 공동체에 대해서 공지하길 원함
- 마을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체크목록이 있으면 좋겠음
- 2021년 용인 마을공동체 자료집 '용인이 마을이다' PDF파일 밴드 공유 필요
- 마을공동체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시도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마을공동체로 유인 목표가 아직 돈에 그침
- 마을공동체를 만든 이유가 지원사업비 수령에만 그치고 구성원에 따라 목표가 다른 것이 문제

## 3. 나누고 싶은 질문

마을공동체의 강점은 무엇인가/ 주민자치를 위한 마을공동체의 역할은?

- 마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음
-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합의에 익숙
- 공동선에 대한 지향이 있음

마을공동체의 단점은 무엇인가?

- 마을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 고민의 치열함이 부족함, 그 이유는 이상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데서 오는 것으로 보임
- 특정 소수집단의 이익에 몰입할 수 있음
- 활동 집단이 소수임

공동체의 패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어떤 지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지향은 참여한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주민들을 마을공동체로 유인할 것인가?

- 공모사업 등 경험을 통해서
- 필요성에서 시작해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

-경제적 자립/ 변화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

1월 11일 나눌 이야기

6교시 : 마을 경제

- 온라인 진행 예정

수고하셨습니다.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6교시

- 일시 : 21년 1월 11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5명
- 주제 : 6교시 마을경제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마을경제를 이해하고 조직 만들기  
마을경제의 종류와 경제조직간 연대의 중요성 알기  
지속가능발전목표, 공유가치를 이해하고 마을경제의 가치 세우기

### 1. 나누고 싶은 배움

- 경제의 양극화, 불평등 심화, 비환경적 개발과 환경 파괴 등의 자본주의 문제와 높은 실업률, 복지의 개인 책임 등 자본주의 문제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
- 사회적 경제란 이윤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이다.
- 사회적경제의 주체로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 있음
- 근대적 협동조합의 성공적 초기사례는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며, 남녀평등, 조합원 교육, 정확한 회계 등 현재 협동조합의 토대가 되었다.

### 2. 함께 나눈 의견

- 많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한계는 소비자의 층이 두텁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발전하지 못하고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좀 더 마을의 수요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결국 마을 경제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중요함
- 돌봄노동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음, 돌봄의 영역을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이 분담하는 쪽으로 강화되면 좋겠음
- 커뮤니티 케어가 더 확산되어야 하지만 현장에 애로사항 존재
- 마을공동체는 재정상의 이유로 계속 공모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제력 확보를 위한 고민과 구체화가 필요

- 공모사업으로 공동체 사업을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인식 시켜서 자본력이 있는 집단과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봄 (ex: 신협과 연계한 청년 주택사업)
- 용인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 호혜관계를 형성했으면 함
- 사회적 기업은 이윤추구를 하지만, 사회 재분배, 기부 등 필수적인 사회공헌 역할이 있음
- 학교 매장협동조합 운영 경험 공유
-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진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추후 사이트 들어가 보길 권함
- 학교 협동조합은 용인에도 6곳 있으며 새롭게 1곳 개소 예정
- 마을의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 마을 전체의 변화가 가능함
- 마을 활동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서 이를 전파시킬 방법을 찾으면 좋겠음
- 경력단절여성이 아닌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명칭에 변화를 주고 있음

### 3. 나누고 싶은 질문

독립적인 경영이란 무엇인가?

- 조합원 자체가 주인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 없이 조합원이 함께 결정하는 구조임
- 협동조합은 1인 1표이고, 임원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독립적임
- 독립적 경영은 형태가 아니라 의미로 볼 수 있음 민주적인 권리를 위해, 기업의 가치가 유지되는 것으로서 의미

행동경제학과 사회적 경제의 관계는?

- 행동경제학: 시장경제학을 보완, 수정하고자 한 이론으로 인간의 심리가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
- 이익을 추구하나 늘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기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많이 좌우되는 사람들의 본성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사이의 접점을 찾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센터에게 바란다

-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마을 경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음

**1월 18일 나눌 이야기**

7교시 : 마을계획수립1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7교시

- 일시 : 22년 1월 18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5명
- 주제 : 7교시 마을계획수립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마을 활동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하기  
주민참여 의제발굴과 수립의 프로세스 이해  
마을의제 실천을 통한 마을의 변화 이해

### 1. 나누고 싶은 배움

-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와 답을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자리가 없었을 뿐이다’는 내용이 와닿았음
- 의제 수립, 실천보다 공동체 의식 강화가 우선 된다는 대목이 이해 되지 않았음
- 마을공동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이었음
- 마을자원조사는 주민과의 관계맺기로 설명됨

### 2. 함께 나눈 의견

- 퍼실리테이터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였음, 마을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싶음
- 마을을 지속하는 힘은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음
-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함
- 마을계획에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함
- 마을계획 수립을 해 본적이 없어 잘 모르겠음
- 마을 공동체원의 역량이 성숙해야 계획을 실천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함
- 주민 역량의 성숙도는 타인이 마을에 대해 물어봐도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에 있다고 생각함
- 마을주민들이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함. 관에서 개입을 최소화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문성이 있는 공론장이 있어야 함

- 커뮤니티 공간이 생겨도, 사람이 오고 가지 않으면 활동은 끝이 난다고 생각함
- 사람을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함
- 함께 하는 공간, 자리에서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주민 역량 성숙도 역시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의 축척이 있어야 한다고 봄
- 중간 지원조직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마을계획 수립 전체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많았음
- 활동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음, 마을 자체의 아카이빙, 후속 조사에 대해 궁금함
- 마을공동체는 기업과 달리 목적이 없어서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다른 챕터보다 내용이 따뜻하여 좋았음 가좌2동의 사례를 보며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데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아 걱정되었음
- 공모사업 진행 중 많이 받는 질문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았음 마을공동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됨 마을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하는 역할이 커졌으면 좋음
- 마을공동체 활동은 결국 마을 자치까지 이어지는 활동임. 마을주민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함
- 공모사업, 재정문제 등 돈이 개입되면 마을공동체가 힘을 잃는 것 같다고 느꼈음. 초기에는 공모사업보다는 마을 내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좋겠음
- 개인이 되었든, 공동체가 되었든 목표, 목표지점이 아닌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의제 발굴은 일상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고 생각함 생활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의제가 되었으면 좋겠음

### 3. 나누고 싶은 질문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질 동안 필요한 긴 시간과 호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첫 만남이 중요하며, 점점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처음부터 장기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가좌2동에 사례에서 보면 처음 시작한 3명의 사람이 중요했다고 생각함 처음 누군가 시작했을 때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꼈음
- 그동안 받은 마을 교육이 효과 있었다고 생각함

-이하 다양한 마을공동체의 사례가 공유됨

#### 4. 숙제

-의제가 아닌 좀 더 쉬운 말을 한번 찾아서 다음주에 함께 나누기

#### 1월 25일 나눌 이야기

8교시 :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8교시

- 일시 : 22년 1월 25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5명
- 주제 : 8교시 의사소통 및 관계형성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말해야 할 때와 들어야 할 때의 구별  
갈등 해결의 다양한 접근법 배우기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우기

### 1. 나누고 싶은 배움

- 기본적으로 만남은 상대에 대한 존중,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 대화는 말하기, 듣기로 이루어지며,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최대한 줄여 상대방의 입장에 서려고 노력하는 공감의 끈이 곧 듣는 것이다.
- 지배체제의 사회에서는 주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반면에 협력체제의 사회에서는 동등한 인간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한다.
- 말하는 이의 시선에 맞춰 몸부림을 치는 것이 듣는다는 행위다.
- 경청은 침묵 상태와는 다르며,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다.
- 다가가는 대화의 비결: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응한다/ 인격이 아니라 상황을 말한다/ 충고나 지시를 할 때 먼저 상대방의 말부터 듣는다.
- 갈등 관계를 예방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는 공통의 생각이나 가치를 나누는 철학, 함께 하는 활동,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평화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창조적인 대처를 할 때 이루어진다.
- 공동체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각 개인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다.

## 2. 함께 나누는 의견

- 듣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됨,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행위라고 생각함
- 다가가는 대화의 비결 중 행동이 아니라 감정에 대응한다는 문장이 와 닿았음
- 인간이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어 좋았음
-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음
-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갈등이 생성되면 이후 복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그러기에 서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함
- 공동체는 기업체와 달라 공동체가 원한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 것이 공동체의 장점인 듯싶음
- 공동체 내 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 중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투표를 하지 말고, 의견일치를 보려고 노력하라'라는 원칙이 와 닿았음
- 게임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의 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함
- 모든 사람은 소속(존재감), 통제(역할 나눔), 정서(친밀함)의 세 가지 대인관계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공동체의 틀에서 이해하고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게 필요함
-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함
- 비공격적 대화 기술에 대한 공유 (사람이 아닌 내용 지적, 한발 물러나 주장하기, 일치하지 않은 부분 정확하게 주장하기 등)

## 3. 나누고 싶은 질문

다른 사람 처지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충분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말하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솔직함이 필요함
- 감정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함

원하는 만큼 관계를 맺는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이해가 되지 않았음. 원하는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와 닿지 않았음
- 자신이 원하고, 남이 원하는 만큼으로 이해하였음

- ‘나’전달법을 참고하자. 사실에 기반한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공동체 내 갈등 상황에서 해결한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공모사업 진행 시 공동체가 목적이 이기적일 수 있음. 목적의식이 분명할수록 공동체 내 원칙이 중요하며, 공동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
- 공동체 내 개인의 역할 분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회의 진행 시 사회자를 돌려가며 구성원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공동체에 대한 철학, 활동 방안에 대한 합의를 가질 수 있도록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

협상의 기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 자신의 말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충분한 대화가 중요함

#### 4. 숙제 공유

지난 주 ‘의제’를 대신할 쉽고 편한 말을 찾아보자고 하였는데,  
-‘풀 거리’에 대한 긍정 반응이 많아 의제를 ‘풀 거리’로 쓰기로 함

#### 2월 8일 나눌 이야기

9교시 :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9교시

- 일시 : 22년 2월 8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4명
- 주제 : 9교시 연대와 협력 네트워킹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인한 문제점 파악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을 바라보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만들기

### 0. 나누기

동화책 마음먹기를 읽는 시간을 가짐

책이름/ 마음먹기

글/자현 그림/차영경 출판사/달그림

일상나누기

1. 지난주에 먹은 가장 맛있는 음식
2. 최근에 새로 시작한 일

### 1. 나누고 싶은 배움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경험을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역의 공동체 활동은 ‘재미-참여-열정-실행-성과-성공의 경험-재미-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진다.
-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뢰, 공동의 목표, 시민의식, 공유공간이 필요하다.

## 2. 함께 나눈 의견

- 마을의 장점은 경쟁관계가 없어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라는 지점임. 미래세대가 마을에서 경쟁이 없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비극적인 사건의 배경은 인간소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음. 마을공동체는 한 마디로 사람들과의 관계망인데 관계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절제하고 위로 받는 등의 관계의 힘을 통해 비극적 사건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음.
- 마을 공동체에서 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교육 문제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음.
- 여러 연령대가 마을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필요함.

## 3. 나누고 싶은 질문

###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동네를 회고하자면?

- 골목이 있는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기억이 있음
- 동네별로 애향단이 있어서 골목길 청소, 꽃길 가꾸기를 하던 초등(국민)학교 시절이 기억이 있음
- 어린시절 내복차림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던 기억과 함께 쥐불놀이 같은 경험을 공유함
- 평상이 있어서 다양한 마을사람들과 교류한 기억이 있음
- 술래잡기, 물 길어오기 같은 재밌었던 기억이 있음
- 꽃피는 산골, 굶주렸던 기억이 있었지만 즐거웠던 추억(학교운동회)도 많이 생각남
- 겨울에 개울이 얼면 썰매 탔던 기억이 있음
- 아침에 동네사람들과 함께 마을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음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연령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음
- 청소년 심터가 많이 필요함
-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홍보수단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홍보성이 높다고 함)

-학교협동조합과 마을공동체간의 협업이 필요함

-마음을 먹고 재미와 열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 파주시의 '고민세탁소', 민주주의기술학교/인천시의 '모.떠.꿈'(모여서 떠들고 꿈꾸다) 참고

## 2월 15일 나눌 이야기

10교시 : 주민모임1, 2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10교시

- 일시 : 22년 2월 15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3명
- 주제 : 10교시 주민모임1, 2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공동체 안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와 방법  
공동체에 필요한 느슨한 주민조직화 이해하기

### 1. 나누고 싶은 배움

- 공동체 활동의 성공열쇠는 이해 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 의사결정의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게 필요하다.
-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고 개인의 관심과 주인의식의 고취가 중요하다.
- 다원주의적 사회로 접어들며 공동체 활동에서 지역사회 내 성적, 인종적, 사회문화적 상이한 집단 간의 갈등을 인정하며, 지역사회의 공동선과 상호이익을 위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 주민 조직가뿐만 아니라 주민 모두가 함께 갖추어야 할 이슈는 성숙함, 창조성, 용기, 민감성, 인간적 자질이다.
-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준비는 의사소통의 기본요소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태도 이해,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좋은 안건과 좋은 논의 정하기이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원칙 2가지는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일단 끝까지 듣고 나서 자기얘기를 하도록 한다,’ ‘서로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않도록 한다’이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진행자의 역할로는 회의 기획 및 구성, 상호 이해 및 문제해결 촉진, 균형 잡기, 독립적 입장과 태도의 유지, 객관적 듣기, 내용정리,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 마을공동체에서 주민조직화란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력 혹은 자원(물적, 인적)을 연결 확장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 주민조직화를 시작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이해로는 지역사회의 욕구에서부터 시작하기, 말이 씨가 되도록 일상 속 이어가기, 양보다는 질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탄력적 주민 조직화 진행하기, 기획은 주민 스스로하기, 의식전환을 위해 최소한의 교육 진행하기, 주민조직화는 곧 주민 독립을 말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하기, 목적을 다하면 해산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기 등이 있다.
- 주민조직화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준비-계획화-조직화-지역 활동-평가 및 전환 단계로 구성된다.
- 주민조직화를 만들어가는 주민조직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스스로에 대한 꾸준한 성찰,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일상적 관찰, 민주주의적 태도, 선행 차별에 대한 경계, '으레'에 대한 경계, 과정 중심적 태도,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
- 궁극적으로 주민조직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공익성보다 개인의 문제와 관심이 우리의 문제와 관심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와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 유희가 아닌 재미를 느낀 사람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그 지속적 참여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 개개인의 관심사와 유사한 관심사의 공감에서부터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
- 의미와 재미가 결합될 경우 주민조직화는 즐거운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다.

## 2. 함께 나누는 의견

- 동기화 되지 않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공동체 원과 인간적인 대화를 좀 더 많이 나누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회의 진행시 준비, 기록과정이 이후에도 소통을 하기 위해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 마을 일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마을에서 작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마을일이라고 생각한다.
-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기 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히 정보를 함께 나누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마을공동체에서 일하며 경이로운 점은 집단지성의 힘이었던 것 같다. 새롭고 창조적인 발상이 저절로 생겨나는 경험을 하였다.
- '우리 한번 해볼까'라는 말이 와 닿았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씨앗기의 입장에서 좀 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조직화 단계에서 교육, 공부를 하자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공부보다는 함께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 마을에서 조직화는 느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여유로움이 있어서 회사나 조직과는 다른 느슨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부하는 이 자리에 고마움을 느낀다. 공동체 개인의 사례를 나누고, 진행을 하며 배움이 커질 수 있었다.

### 3. 나누고 싶은 질문

#### 마을에서 일을 시작한 배경을 공유해주세요

- 마을 활동은 사실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시작하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집에만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적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재밌게 살려면 동네에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다.
- 동네일을 아직까지는 책으로 배운 것 같다. 로컬 문화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현 시대에 자녀들의 미래도 마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마을에서 할 일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 아파트 회장을 맡으면서 마을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 활동가를 찾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한 미끼 리스트?  
(활동비/ 봉사점수/ 나를 찾을 기회/ 모여하는 활동의 재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의식/ 로컬문화/ 아이들을 위한 현재와 미래/ 나눔의 보람 등)

#### 공동체 내의 예측불가능한 상황이란 어떤 걸까요?

- 진행자의 입장에서는 참여자가 없거나 적은 인원이 참여했을 때 예측 불가능할 것 같다.
-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발생하는 듯하다. 서로의 이해차이로 싸움이 일어날 경우 다수와 소수로 나누어져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런 것 같다.
-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진행자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잘 조율해 주었으면 한다. 역할에 따라 기대하는 점이 다를 듯하다.

**동기화 되지 않은 사람들을 동기화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에는 전제가 있다. 충분한 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정보의 공유를 가능한 충분하게 나누어야 할 듯하다.
- 어려운 지점이다. 같은 동기,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떤 최소한하고 싶은 동기, 목표에 대해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사소한 접점을 크게 만드는 것을 중요한 것 같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태도로 ‘논리적 설득과 논쟁 및 지적 분석’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100% 논리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마을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말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이 점이 선을 넘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 자신의 성향과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숙제**

**‘주민조직화’, ‘주민조직가’ 라는 단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면?**

- 예) 주민쿵썩단 만들기

**2월 22일 나눌 이야기**

**11교시 :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온라인 진행 예정

##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11교시

- 일시 : 22년 2월 22일 화요일 10시~11시 30분
- 참여 : 12명
- 주제 : 11교시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장소 : 온라인 줌

목표 : 마을에서의 자치역량 강화와 결집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에 먼저 참여한 주민으로서의 역할 및 자세

### 0. 한 주간의 기억을 한 단어에 담아 이야기 나눔

#### 1. 되짚고 싶은 배움

- 1교시: 마을에 사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
  - \* ‘마을에 사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마하트 마 간디 선생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공부 모임을 시작
  - \* “마음을 흔들고 세상을 깨우는 과정”으로 터무늬 공부를 시작
  - \* 각자의 마을살이를 공유, 주민들 간에 첫 만남을 여는 방법 습득
- 사람+사람, 사람+마을, 마을+마을 - 기반으로 자치, 협력, 연대, 협치
- 2교시: 지역사회 공동체
  - \* ‘지역사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는 마당 놀이판’
  - \*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연결되고 민관협력이 이루어지는 삶터
  - \* “민주주의의 고행은 동네공동체”
  - \* 마을은 삶터(공간), 사람(조직), 공동체(관계)
- 3교시: 마을공동체 이해하기
  - \* 마을공동체는 대안운동으로서의 가치를 지향
  - \* 전통적인 의미의 공동체 특성은 약화되었지만,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의 의미

\* 특정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

● 4교시: 마을만들기 운동의 흐름과 방향

\* 우리나라 마을만들기 역사의 흐름 (시즌 1, 2, 3)

\* 정치적으로는 자치운동, 문화적으로는 지역 운동, 경제적으로는 순환과 나눔의 공생운동

\* 마을 공동체는 사업이 아닌 비전

● 5교시: 마을자치

\* 마을자치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집행, 실천하는 것

\* 이를 위해서 수평적 관계 형성과 민주적 소통,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 이 부분이 주민의 역량

● 6교시: 마을경제

\*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을경제 공동체가 필요, 사회적 가치가 중요

\* 마을경제공동체의 다양한 형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창의,혁신형

\* 연대와 협력 필요

● 7교시: 마을계획수립

\* 마을자원조사는 주민과의 관계 트기이자 관계 맺기이며

\*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과정은 결국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기에 모임의 장, 이야기장이 필요

\* 기본은 공동체 의식, 주민 주체 역량, 민주주의 실현과정

● 8교시: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

\* 상대에 대한 존중, 차이에 대한 이해, 공감은 곧 듣기

\* 대화의 깊이는 곧 관계의 깊이이며 관계가 깊을수록 욕구가 충족되고 행복해짐

\* 공동체 안에서 갈등은 여유로운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

● 9교시: 연대와 협력 네트워크

\* 지역 공동체 활동은 '재미-참여-열정-실행-성과-성공의 경험-재미-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으로 순환

\* 경쟁이 없는 것이 마을의 장점

● 10교시: 주민모임 -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 조직화

\* 공동체 활동의 성공 열쇠는 이해 당사자 간의 끊임없는 소통

\* 주민조직화는 이웃들과의 협력적 관계망 형성

\* 소통을 통한 합의로 주인의식이 고취되고, 지역사회의 능력이 강화됨

\* 마을 일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마을에서 작게 시작하는 모든 일이 마을 일

\* 개인의 문제. 관심이 우리의 문제, 관심으로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작은 변화와 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

\* 우리 한번 해볼까?로 시작

## 2. 11교시: 나는 마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 나누고 싶은 배움과 질문

#### 마을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 사람을 많이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같은 관심사와 목표를 가졌어도 세부적으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동료들 찾고, 지금 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하며 확장해나가고 싶다.
-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수다 속에서 공통의 불편함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 이야기를 나눌 공간, 자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 현장에서 민주적인 소통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느낀다. 공론장을 만들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함께해보고 싶다.
- 책으로 배웠을 때와 달리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그럼에도 자신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중간자 위치에서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 마을 안에서 어르신, 장애인, 한 부모 가족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 자신의 여건, 역할, 기질에 맞는 역할을 마을 안에서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 독거노인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 한국 사회에 우수한 개인이 많아졌지만 서로 연결이 안 되어 흩어져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동체에서 이들이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 사람과 자원을 꿰어가기

### 나의 기질은? 마을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생각해보기

- 화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봉사와 화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 MBTI 검사에서 대담한 통솔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결과여서 놀랐다. 추구하려는 가치와 원천적 기질이 다른 것이 신기했다. 마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3. 숙제 나누기

질문 : ‘주민조직화’, ‘주민조직가’ 라는 단어를 쉬운 말로 바꾼다면?

- 역할 분담을 제안함
- 주민 연대모임, 주민 활동가로 써도 좋을 듯함
- 도시빈민운동,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생긴 표현
- 주민 쿵짝패(단), 추임이(꾼)

### 4. ‘터 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 마무리 (연인선 센터장님)

- ZOOM마을 ZOOM을 시작한 계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컸었고 용인이 넓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줌을 통해 다양한 분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게 함께라는 의식이 생기고, 교류와 소통의 계기가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 센터에서 추구하는 마을공동체의 방향은 센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며, 이번 공부모임에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직접 진

행하는 경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5. '터무늬' 그 이후의 우리들의 공부모임의 주제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

- 공부모임 참여자 각자의 전문 분야와 공동체 활동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과 개선점이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서로 다른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그동안 '터무늬' 교재로 하는 우리들의 공부 모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도 ZOOM마을ZOOM in 용인을 잘 활용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배움과 의견을 치열하게 나눠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